

임실 역점사업 마무리 맹공

봉황인재학당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 올해 현안사업 막판 스퍼트

올 하반기 최대 행사였던 '2017 임실N치즈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임실군이 재빨리 전열을 가다듬으며, 올해 역점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펼친다. 임실군은 16일 올해 핵심역점사업으로 꼽히는 봉황인재학당과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임실N양념가공공장 건립 등의 추진속도에 고삐를 죄며, 현안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날 열린 간부회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 못지 않게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안해결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심 군수는 또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에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갖고, 군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더딘 사업추진으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어려움 민원

해결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임실군이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 중 하나인 봉황인재학당은 내년 2월 개원을 앞두고, 건축공사가 막바지가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개원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연말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봉황인재학당은 인재양성 캠프와 시설건축업자 협업을 통해 차질 없는 개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 건립사업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2월까지 임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디자인과 ICT융합 인프라구축, 특화상품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기능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경우, 주차공간의 대폭 확대와 함께 문화공연과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이 공존하는 다기능 전통시장으

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특히 이달 말로 예정인 양념가공공장 준공을 서두르며,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열리는 '제2회 임실야사야각장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양념가공공장 마무리 공사와 병행하며, 생산능가 조직화 교육과 김장페스티벌 준비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핵심역점사업으로 꼽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도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설치 설계 용역 발주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군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51억 원을 투입해 4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키로 하고, 이를 위한 지방재정 계획과 위수탁 운영협약 등을 비롯, 노인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추진해 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체험관광 1번지' 발돋움

지리산허브밸리 위치 허브사이언스센터 개관

남원시는 지난 14일 지리산허브밸리에 위치한 허브사이언스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허브사이언스센터는 건축 연면적 6,483㎡에 허브식물원과 토피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피아관 내에는 허브홍보관, 허브DIY체험장, 허브제품판매장, 열린연구실 등이 조성되어 개관과 함께 지리산 가을 향기체험행사도 마련하여 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지리산 가을 향기체험행사에는 (주)엔이에스티 남원과 더불어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사업단, 그리고 허브가공업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허브체험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허브사이언스센터의 개관은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 위·수탁 운영업체인 (주)엔이에스티 남원의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과학을 접목한 체험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정부로부터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된 지리산허브밸리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 축제



남원시는 지난 14일 지리산허브밸리에 위치한 허브사이언스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현주 남원시장 일행이 허브를 살펴보고 있다.

등이 어우러지는 6차산업의 롤 모델로 개발하기 위해 지리산 문봉 바래봉 중턱 72만여㎡ 부지에 지리산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테마파크, 허브가공단지, 허브경관농업지구 등의 기반조성을 해 왔으며, 이번엔 첫 결실로 허브사이언스센터를 개관하게 된 것이다. 연간 체험관광객 45만 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지리산허브밸리는 다양한 허브향이 가득하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찾아오는 체험관

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주)엔이에스티 남원은 건립 중에 있는 허브산업관과 호수를 조기에 완공하여 내년에 개관할 계획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허브밸리에 추진되고 있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체험관광객 유치와 함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순창군이 지난 14일 '더불어 농부 협의회' 설립을 위한 발대식을 진행한 가운데 젊은 농부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농업 견인차 젊은농부 모여라

순창 '더불어 농부' 발대
순창에서 2030젊은 농부들이 '더불어 농부 발대식'을 진행하며 농업을 통한 지역 희망 만들기에 본격 뜻을 모았다. 순창군이 지난 14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순창에서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14명의 농부가 모여 '더불어 농부 협의회' 설립을 위한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 농부 협의회에 참여한 14명의 젊은 농부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로 화훼 치유농업 농장, 달팽이 체험 교육농장, 6차산업 농장, 쌀 가공식품 및 체험농장 등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둔 16명

임실치즈 담은 막걸리 식초 탄생

총 4000여만원 투입 · 20여명 연구진 참여 기술 개발
5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임실치즈의 전통과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든 막걸리 식초가 개발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이사장 심민)는 '임실치즈 담은 막걸리 식초'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전북도와 임실군 지원으로 추진한 '2017년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총 4,000여만원의 예산과 20여명의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치즈제조 시 발생하는 유청과 막걸리를 접목, 기존 식초에 비해 아미노산이 풍부해 신맛과 더불어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최근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 다이어트

지역 매아리

임실군 드론 운용 교육 실시 농기센터 관계자 20여명 참석

임실군은 농업 각 분야에서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직원대상으로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신평면 소재 지역농업실증 시험포에서 열린 교육은 농기센터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박형우 소독작목팀장이 강사로 나서 안전한 드론 사용과 현장 활용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운항원리와 구조, 주요 부품의 기능과 작동원리 등을 교육했다. 국내 드론 관련 제도와 법규 등을 이해하고 농업현장의 활용 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됐다. 또한 예찰 및 홍보용 드론 2대를 활용한 현장 조종 실습은 큰 호응을 얻었다. 농기센터는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예찰과 농작물 생육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드론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센터 관계자는 "드론은 일반 농가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고 기체손상에 의한 경영비 손실 우려도 크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 보급에 앞서 농가단위 교육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 수 있도록 지도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승마장 성공가능성 활짝 학생체험 신청 줄이어 호응 얻어

순창군 승마장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체험형 승마장으로 성공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개장한 순창군 승마장에 승마체험을 신청한 학생들이 현재 280여명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승마체험은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을 통해 진행되며 승마체험, 말 먹이주기 등이 3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 진행된다. 한편에서 지난 주말에는 순창 중앙초등학교, 순창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100여명이 승마체험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문화시설 권속이 계장은 "개장하면서 아이들이 바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면서 "앞으로 12월까지의 일정이 꼭 할 정도로 체험 예약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순창 승마장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할 수 있도록 국가 사업에 공모를 추진하는 등 승마장의 운영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